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이계훈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aver.com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이계훈 회장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회원 여러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을사년 새해에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여파로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정책과 미중 갈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내외적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안보, 경제분야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 공군전우회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 가득한 협조로 2024년도 계획사업과 주요행사를 차질없이 마칠 수 있었으며, 그 외에 회원 관리 및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군발전협회는 지난 5월22일 '격변의 시대, 항공우주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항공우주력연구' 논문집 제12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위원들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군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가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하였으며, 5세대 전투기 F-35 등 첨단 전력을 운용하는 선진 공군의 기틀을 다져온 선배님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공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내외의 불안정한 안보,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서로의 화합, 단결을 통하여 공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조국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조국에 대한 충성과, 보다 나은 국민의 삶, 그리고 보다 강한 공군력 건설의 과제를

가슴에 품고 정성을 다해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회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에는 「서로 정(情)을 많이 나누는 단합하는 한 해」를 목표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는 공군 현안 사업들의 적기 추진을 위해 모든 가용역량을 동원하여 뒷받침할 것이며, 또한 회원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그리고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군전우회 중앙회를 비롯한 산하단체, 지부/지회와 공군발전협회의 성공적인 한 해를 기원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국민과 함께 하는 강한 선진 공군'인 우리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대한민국공군전우회/공군발전협회 회장 이계훈

중앙회 회장단 일본 츠바사회 방문

본회 이계훈 회장 등 임원 8명은 일본 항공자위대 예비역 단체인 츠바사회 초청으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일 공군 예비역 단체간 교류증진을 위해 체결된 협정서에 의거 이루어진 행사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 최초로 일본 츠바사회 방문단 일행이 방한한 후 격년제로 상호 방문중이며 이번 한국측의 공식방문은 2005년에 이어 9회째로 이루어진 행사다.
방문단 일행은 10월 15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여 츠바사회 스키야마 회장 등 임원의 영접을 받은 후 오후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측 계획에 의거 재일민단 방문, 학도의용군 충훈비 참배와 박물관을 견학한 후 저녁에는 츠바사회 주최의 환영만찬식에 참석했다. 11월16일에는 후쿠지지에 있는 우주작전전대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스파카-JSAT 위성관제센터를 방문했다. 11월17일에는 JA2024 항공우주산업전시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자체계획에 의거 도쿄시내 관광을 실시했다.



11월18일에는 요코하마 관광후 오후에는 방위대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유학생 2명을 격려한 후 귀국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공군전우회와 일본 츠바사회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024 탑건' 정시형 소령에 공군전우회 보라매상 시상

본회 이계훈 회장은 2024년 12월 26일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 공군공중사격대회에 참석하여 2024년도 '올해의 탑건'으로 선정된 17전비 F-35A 조종사인 정시형 소령에게 공군전우회에서 수여하는 보라매상인 기념패와 100만원의 상금을 직접 전달하고 축하해 주었다.
탑건은 공군 공중사격대회 공중사격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공군 최고의 명사수 조종사'에게 부여되는 칭호다.
정 소령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개인 점수 총 1200점 만점 중 1180점을 기록했다.
정 소령은 2015년부터 6년간 11전투비행단(11전비)에서 F-15K 조종사로 활약하다가 2020년 F-35A로 기종전환 후 17전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주기종인 F-35A 331시간을 포함해 총 1373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다.//



2024 안보현장 견학



본회 이계훈 회장은 10월 24일 중앙회 임원/회원 및 전국지부/지회 임원 등 약130명을 초청하여 사천지역안보현장을 견학했다.

견학단 일행은 먼저 '2024사천에어쇼'(2024.10.24. - 10.27)개막식행사에 참석하여 T-50, LAH, KF-21 시험비행, 40여대항공기 FLY-BY 및 블랙이글스 에어쇼 관람과 항공기전시장 및 공군홍보관을 둘러보았다. 오후에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주관한 사천지구 호국영령 추모행사에 참석하여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이어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하여 KAI홍보영상 시청, 강구영 사장의 환영사와 이계훈 회장의 격려사, 방문기념패와 기념품교환 및 항공기 생산시설을 관람했다.//

사천지구 공군호국영령 추모행사



공군전우회와 공군본부가 주최하고 제3훈련비행단이 주관하며 사천시가 후원한 사천지구 공군호국영령추모행사가 10월 24일 3훈비 역사전시장내 위령비 앞에서 개최됐다.

2024사천에어쇼와 연계하여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공군전우회원 약 130명과 3훈비 장병 및 사천시장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는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가, 조총발사 및 묵념, 호국영령께 대한 경례순으로 진행됐다.

사천지구 호국영령 위령비는 6·25전쟁시부터 '62년 9월까지 사천기지에서 작전임무 및 훈련 중 호국의 넋으로 산화한 고 김영환 장군 등 45인의 영령을 위로하고자 '62년 6월 건립되었다.//

이계훈 회장, 양평지회 격려 방문



본회 이계훈 회장은 12월 7일 경기도 양평지회를 방문, 지회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지회원으로 및 지회원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은 “김수영 지회장을 중심으로 지회 원로 및 지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회가 활성화 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회원간 친목도모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연말 전투부대에 격려전화 및 위문품 전달

본회 이계훈 회장은 12월 16일 연말을 맞이하여 국방의 최일선에서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11전투비행단, 제302관제대대 및 제111-2포대지휘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전화는 예년에 실시했던 부대방문을 사정에 의해 실시하지 못하고 대신 격려전화로 대체했다.

위문품은 3개부대에 세탁기 10대와 스낵류 500박스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3개부대 지휘관들에게 “영공방위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며 “공군전우회 전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동계 작전태세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계훈 회장, 서산지회 격려 방문



본회 이계훈 회장은 12월 4일 서산지회 송년회에 참석하여 지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모임에는 서산지회원 약 2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했으며, 이 회장은 “홍만진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회가 활성화 되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인근 공군부대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공군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일영 공군 중위 추모행사



공군전우회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호국영웅이일영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일영 공군중위 추모행사가 11월 11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에 소재한 이일영 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유족대표와 공군전우회 대구지부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헌화 및 분향, 추념사, 기념사, 추모시 낭독, 추모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일영 공군 중위는 안동시 예안면 선양리에서 태어나, 6·25전쟁에 참전해 대구 영천지구 일원에서 수백명의 적을 격멸했으며 원산지구 상공에서 대공포에 피탄되자 기체를 적진으로 돌진해 24세의 꽃다운 나이에 조국의 하늘에서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웅이다.

안동시는 호국 선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이일영 공원을 조성해 매년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원 앞 도로 700m 구간을 안동시 명에도로 1호인 '호국영웅 이일영로'로 지정하는 등 이일영 공군 중위의 희생과 공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원 초청 위로행사



이계훈 공군전우회장과 정석환 공사총동창회장은 12월 4일 공군호텔에서 참석이 가능한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이하 순조회)회원 19명을 초청해 위로 오찬행사를 가졌다. 이계훈 회장은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순조회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송우영 순조회장은 “우리 순조회원들은 항상 공군 가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 전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순조회는 1976년 8월 창립되어 현재 약 47명의 회원이 있으며 순직조종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공군사관학교에 건립된 “영원한빛 추모탑” 참배와 어려운 회원돕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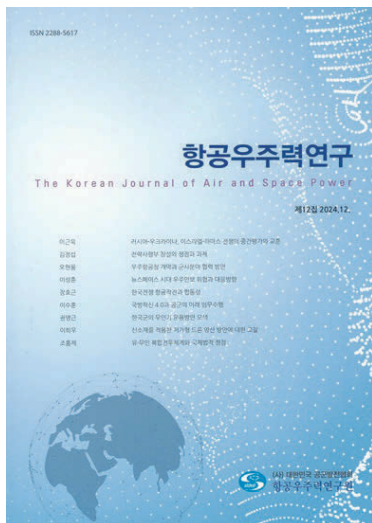
박대준 신임 항공안전단장 취임인사차 예방



지난해 11월 11일 취임한 박대준 (예 준장, 공사 40기) 신임 항공안전단장이 11월 13일 취임인사차 본회 이계훈 회장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이 회장은 “취임을 축하하며 항안단내에는 공군전우회를 비롯한 공군 예비역 단체가 함께 근무하고 있어 항안단으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예비역 단체들에게 잘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 제12집’ 발간

공군발전협회(회장 이계훈)는 공군 예비역 및 현역들의 군사학술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공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항공우주력 연구’ 제12집을 12월 1일 발간했다. 연구지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중간평가와 교훈(이근욱), 전락사령부 창설의 쟁점과 과제(김정섭), 우주항공청 개막과 군사분야 협력방안(오현웅),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안보위협과 대응방향(이성훈), 한국전쟁 항공작전과 합동성(장호근) 등 9편이 수록되어 있다. 학술지인 ‘항공우주력 연구’는 항공우주력과 국가안보를 중심으로한 안보전문지로서 관심 있는 국내안보전문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국가안보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총동창회 신임 회장단 취임 인사차 예방



2025년 1월 1일부터 취임한 원인철 공사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신임 회장단 일행이 1월 8일 취임 인사차 본회 이계훈 회장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본회 이 회장은 “신임 회장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두 단체 발전과 공군 발전을 지지/후원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심인태 미 LA지회장 내방



심인태 미 LA 지회장이 10월 14일 중앙회를 방문하여 이계훈 회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심 지회장은 LA 지회 현황과 활동사항들을 간략히 보고하고 LA지회 회원들의 소식을 전했다. 이 회장은 “심 지회장이 지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고맙다”고 하면서 “지회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 친선골프대회 개최



공군전우회 주관 2024년도 (제22회) 친선골프대회가 11월 6일 수원기지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동호회원 148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개인전), 2부(단체전)로 구분 개최하였고, 대회 결과 1부 행사에서는 17명의 조별 우승자를 선발 시상하였으며, 근접상에는 인사회 정갑순 회원, 롱 드라이브상(주니어 그룹)에는 해동청회 박지업 회원, 장타상에는 20-24회 흥민 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2부 행사에서는 우승 해동청회, 준우승 학사회, 3위는 이글회가 차지했다. 한편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 많은 협찬을 하였는데 학사장교회 200만원, 해동청회 80만원, 은하회, 황성회 각 70만원, 시우회, 원우회 각 60만원, 무스탕회, 정우회, 수송회, 정통회, 기무회, 방공회에서 각 50만원, 이글회, 항록회, 수지회, 조간회에서 각 40만원, 관리회, 보급회, 20-24회, 군무원회, 청운회에서 각 30만원, 인사회 20만원 및 15-19회에서 18만원을 각각 찬조금으로 협찬하였다. 그리고 후원업체로는 동국계약에서 경품 10점과 참가자 전원에게 치약 1개씩을, 그리고 이강욱 골프동호회장이 타올 200장, 해동청회 전홍수 회원이 경품으로 화장품 10개, 이용빈 골프동호회장이 경품 1개(퍼터), 전우회에서 경품 10점을 각각 지원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선수들에게 많은 시상품과 참가상품 제공 및 경품추첨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골프동호회 23개단체 대표선수들이 함께 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회원간 친목 도모 및 공군전우회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4 사천에어쇼

공군과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동 주최한 사천에어쇼가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3훈련비행단에서 역대 최대관람객인 41만 3225명을 기록하면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4일 개막식 행사에 이어 LAH, KF-21 등 시험비행과 40여대의 항공기 축하비행 및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에 이어 오후에는 공군특수부대 고공강하와 호주 곡예비행팀 폴베넷(Paul Bennett)의 수준

높은 에어쇼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또 항공기 지상전시와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2024 공군공중사격대회 시상식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2월26일 공군호텔에서 '2024년 공군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주관하고 17전투비행단(17전비) 소속인 정시형 소령에게 탑건 기념명패를 전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공군 주요 지휘관·참모, 이계훈 공군전우회장, 장승준 매일경제그룹 부회장, 영화 '빨간 마후라' 주연이었던 신영균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선 분야별 단체·개인 시상도 이뤄졌다. 공중사격 분야 종합 최우수 대대로는 17전비 151전투비행대대, 19전투비행단 162전투비행대대, 10전투비행단 101전

투비행대대가 꼽혀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같은 분야에서 각 전투기 기종별 최고 기량을 보여준 6명의 조종사들은 국방부장관상의 주인공이 됐다. 이 밖에 '공중투하' 15특수임무비행단 송민 소령, '탐색구조' 6탐색구조비행전대 하대권 대위, '항공정찰' 39비행단 김정렬 대위가 각 분야 최우수 조종사로서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 대회 첫 참가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신인 조종사들도 포상했다. 18전투비행단 육현성 대위 등 10명의 조종사는 우수신인상을 수상했다//

한미공군 항공지휘관회의

한미 공군 항공지휘관들이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세계 평화 위협 행위에 따른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전시 한반도 내 신속전투배치(ACE) 작전개념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와 미국 7공군사령부는 10월 21~22일 오산기지에서 항공지휘관회의(ABC)를 열었다. 회의에는 한미 항공지휘관·관계관 80여 명이 모였다. 우리 공군에서는 김형수(중장) 공작사령관을 중심으로 공중전투사령관, 공중기동사정찰사령관, 미사일방어사령관, 방공관제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과 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미 공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중장) 7공군사령관, 주한미해병대사령관 등 국내 주요 지휘관·참모와 미 5공군사령관, 미 15비단장 등 일본·하와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휘관·참모가 함께했다. 회의 첫날 한미 항공지휘관들은 북한이 적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남북 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하며 대남위협 수위를 높이고 러시아 파병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을 공유했다. 둘째 날 우리 공군은 '작전지휘관 전략토의'로 현 상황 관련 대비태세 유지·즉응계획과 공군력 발전 관련 주요 안전을 주제로 발표·토의했다//

한·미·일 공군참모총장급 첫 회의 "북 위협 지속 협력"

한·미·일이 공군대장급 인사가 참가하는 3자 회의가 최초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안보협력·교류를 강화하고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월 22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데이비드 엘빈 미국 공군참모총장, 우치쿠라 히로야키 일본 항공자위대 막료장이 전날 화상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국 정상과 국방장관들이 논의한 국방·안보협력 사안을 공군 차원의 노력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해당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2024 올해의 골든 아이 시상식

공군31방공통제전대 조영준 준위와 51항공통제비행전대 김동학 준위가 공군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를 뜻하는 '골든 아이(Golden Eye·하늘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눈)' 칭호를 받았다. '2024년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 지상·공중통제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선보인 이들에게는 합동참모의장상이 주어졌다. 31방공통제전대 3통제대는 '최우수 부대'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 공군은 10월 31일 방공관제사령부 대회의실에서 방공관제사령관 주관으로 대



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군은 항공통제 임무원 역량 증진을 위해 1980년부터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B-1B 전략폭격기 전개...한·미·일 공중훈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와 능력을 현시한 공중 훈련이 전개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1월 3일 "한·미·일이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제주 동방의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4년도에 두 번째이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네 번째다. 이날 공중 훈련은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에 대응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실시됐다. 훈련에는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우리 공군의 F-15K·KF-16 전투기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가 참가했다//

한미 공군, 연합 공격편대군 훈련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자행한 10월31일 한미 공군은 F-35A·B 등 5세대 전투기를 비롯한 대규모 항공전력을 동원해 연합 공격편대군 훈련을 전개하며 단호히 맞섰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한미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 대규모 연합 공중 훈련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의 하나로 공격편대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F-15K·KF-16 과 미 공군·해병대 F-35B·F-16 등 전투기, MQ-9 무인기 등이 투입됐다. 전투기에는



정밀유도무기(GBU-12)가 장착됐다. 한미 항공전력은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연합 공격편대군을 형성해 다양한 전술비행·정밀폭격훈련을 했다//